

한국 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2: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교계전문가 6명의 진단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원인을 찾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발을 떼는 이 공론화 과정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옥성득

UCLA 교수
(1차 7월 14일)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2차 8월 4일)



백소영

강남대 교수
(3차 8월 18일)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차 9월 1일)



배덕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교수
(5차 9월 15일)



장동민

백석대 교수
(6차 9월 29일)

일시

2025년 7월 14일 ~ 9월 29일, 격주 월요일 19~21시

장소

성락성결교회 801호 (성수역 1번 출구,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중계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기윤실 

참가비

6만원 (회당 1만원, 기윤실 후원회원 50% 할인)

신청 및 문의

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

[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12.3계엄 이후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회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속 토론회(2차)

┃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 원 야다북스

┃ 발간일 2025년 8월 4일

┃ 편 집 이명진

┃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야다북스

2차 토론회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김은득 (백석대학교 교수)

Ⅰ 내용

발제. “탈근대 파시즘과 다층적 사회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극우 운동 비판” -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4p

Ⅰ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문]

탈근대 파시즘과 다층적 사회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극우 운동 비판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I. 들어가는 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는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만약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마 5:13~14).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당위성만으로 교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 문제는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온 ‘우리의 것’이다. 둘째, 사회 문제의 해결은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전자의 인식은 교회가 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고, 후자의 인식은 교회가 사회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

물론 사회적 변화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한국처럼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 사회는 분석하기가 더욱 난해하다. 왜냐하면, 사회구조의 중첩으로 인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중첩은 구성원의 다층적 사회 정체성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충돌은 사회변화의 추동 동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자발성이 아닌 -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 권력자들이나 헤게모니를 쥐었던 이들의 일방적인 강요나 억압이었던 사회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그 부작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와 한반도 분단, 한국 전쟁과 군사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 변화의 동기나 부작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양한 구조가 중첩하며 서로 다른 사회 정체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공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에 대한 강박 관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편으로, 권위주의에 기초한 개발 독재 시기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는 낡은 구조를 거부하는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 사태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아 낸 ‘빛의 혁명’의 주도 세력이 공존하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억압과 차별 문제는 상호교차성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파시즘의 문제가 근대적 특징과 탈근대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 메시아주의(political messianism)와 같은 기존의 문제뿐 아니라 ‘이대남’ 현상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교회는 더욱 복잡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기독교 극우 세력의 문제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젠더 평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한국 교회는 일부 근본주의 교회들의 행태와 같이 현실을 외면하며 손쉬운 길로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좁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첩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의 상호교차성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II. 우리의 현실: 다층적 사회 정체성과 억압의 상호교차성

1. 다층적 사회 정체성과 사회구조의 중첩

다층적 정체성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다층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라고도 불리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정체성의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오늘날 소위 MZ세대 혹은 청년 세대에 관한 논의가 복잡한 이유는 이들이 기존 세대와 비교해서 다층적 정체성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층적 정체성의 두 가지 측면 다층적 사회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둘째,

다층적 사회 정체성과 사회구조의 중첩 사회 정체성이 사회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다층적 사회 정체성은 사회구조의 중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중첩되어 발생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처럼 사회구조의 중첩으로 인해 다층적 사회 정체성이 공적 영역에서 상호 충돌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충돌의 원인과 주체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특정한 정체성(예: 종교적 정체성 등)으로 단순화해서 해결하려 할수록 갈등의 진폭은 더욱 커진다.

2. 억압과 차별의 상호교차성

상호교차성 현대 사회는 과거 계급론과 같은 거대 담론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차원이나 미시권력적 차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개념이 바로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혹은 ‘교차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억압과 차별의 다층적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억압의 문제는 “계급, ‘인종’/민족,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등을 포함한 사회 불평등의 요소들을 상호교차”시켜 파악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차원적 개념화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차별의 유형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종과 젠더, 혹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의 상호교차”와 같은 “상호교차하는 억압의 특정한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정의에 관한 인식

3. 사회 정체성의 충돌과 정치적 극단주의

사회 정체성의 충돌 다층적 사회 정체성과 상호교차성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중첩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중첩이 극단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원으로서 사회 정체성의 충돌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은 한편으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사회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억압에 의한 역경은 인종적 민족주의에 대한 강박과 집착을 갖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이중적 혹은 모순적 현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권위주의적 사회 환경으로 인해 후자를 통해 전자의 차이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강압적으로 나아갔다.

오늘날 이러한 20세기의 경험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봉건적 가치체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부터 탈근대적 가치체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다양성이지만,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양성이 서로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나아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회 현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구조의 중첩도 마찬가지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대남' 현상과 '빛의 혁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대남 현상과 정치적 극단주의
역차별의식과 반여성주의
이대남과 포퓰리즘
포퓰리즘과 반여성주의
이대남과 정치적 극단주의

III. 우리의 문제: 탈근대 파시즘과 정치적 메시아주의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 운동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청년 남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담론들은 아직 명확한 합의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소위 진보 언론들을 중심으로 20대 남성을 이대남으로 묶어 극우로 명명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정치적 문제의 책임을 특정 집단으로 돌리는 행위와 특정 문제를 반복해서 양산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행위는 동일하지 않다. 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만 가지고 후자의 행위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는 언론의 주장들은 오히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더구나 청년 세대의 보수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극우 정치 운동을 핵심 집단이 청년 남성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의식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청년 집단 혹은 20대 남성 집단의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점차 파시즘의 경향을 보이는 극우 정치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다. 소위 '과잉 대표화'의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 극우 세력과 교회의 관계처럼 과잉 대표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을 향해 "과잉 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는 과정이 더욱 미래 지향적이다.

정치학적 측면에서 극우에 관한 다양한 개념 규정이 가능하지만,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주류' 우익과 구별되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반체제(anti-system)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21세기 극우 정치 운동은 20세 극우 정치 운동과 연속성뿐 아니라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중첩적 특징으로 인해, 양자는 분명 혼재하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 본 글에서 파시즘(fascism)에 집중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극우 운동은 공통으로 파시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 탈근대 파시즘(postmodern fascism)

근대 파시즘의 특징 오늘날 근대 파시즘(modern fascism) - 혹은 역사적 파시즘(historical fascism) - 이라 불렸던 사상은 20세기를 지배했던 주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파시스트 정당과 운동들은 각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利害)를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를 지향하는 극단적인 집단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군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거 민주주의와 정치적·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경멸, 자연적 사회 위계와 엘리트의 지배에 대한 믿음 등이 그 기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탈근대 파시즘의 특징 하지만 파시즘도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기에 탈근대 파시즘(postmodern fascism)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직면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탈근대 파시즘이었다. 1980년대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부상한 탈근대 파시즘은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근대 파시즘과 탈근대 파시즘 사이에는 몇 가지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첫째,

둘째,

셋째,

물론 탈근대 파시즘과 근대 파시즘 사이에는 연속성도 존재한다.

첫째,

둘째,

셋째,

2. 정치적 메시아주의(political messianism)

오늘날 탈근대 파시즘의 문제는 정치적 메시아주의(political messianism)로 이어진다.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기독교의 메시아사상을 정치적 영역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데, 특정한 정치 지도자와 그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상으로 포장하여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종종 현실이 복잡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정치적 메

시아주의는 힘을 발휘하는데, 이는 파시즘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과 거의 동일하다. 사실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근대 파시즘과도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작동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그 외양을 바꾼 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메시아주의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3. 기독교 극우 세력의 포자화

한국 사회의 근대 파시즘 사실 한국 사회는 근대 파시즘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일본 군국주의와 군사독재로 인해 형성된 억압적 사회 환경으로 인해 극단적 권위주의가 내재화했고 권위주의적 사유 양식과 행동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 전쟁과 분단 체제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치적 극단주의가 쉽게 자리 잡았다. 소위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의 근대 파시즘을 대표하는 현상이다. 당시 권위주의 통치 아래서 기독교를 누렸던 이들은 군사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이들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빨갱이’로 몰았다.

한국 사회의 탈근대 파시즘 게다가 87년 체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IMF 사태로 신자유주의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경제적 양극화, 급속한 언론의 상업화, 젠더 갈등 등으로 공론장이 붕괴하고 극우 세력이 정치 세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탈근대 파시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첩적 특성은 근대 파시즘과 탈근대 파시즘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혹자의 말처럼, 극단 극우를 대표하는 전광훈과 급진 극우를 대표하는 이준석을 정치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자는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교회는 기독교 극우의 정치 세력화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혐오와 차별의 도구화 & 선동의 정치
근본주의와 극우
윤석열 정권과 기독교
극우 세력의 포자화

IV.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민

1. 탈권위주의와 교회

탈근대 파시즘의 시대에 탈권위주의는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탈권위주의는 권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성숙한 민주 사회를 위한 정치적 전환을 의미한다.

권위에 관한 인식의 전환

권위의 왜곡으로서 권위주의

탈권위주의를 위한 사회적 연대

교회의 사명으로서 탈권위주의

2. 횡단적 연대와 저항

횡단적 연대와 저항

횡단성과 초연결사회 횡단적 연대와 저항은 한국 사회가 전문성보다는 횡단성(transversality)이 중요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횡단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 용어는 사회학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남겨놓은 결과물이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와 같이 횡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반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연결사회에 대한 학문적 혹은 신학적 논의와 별개로 초연결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횡단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횡단적 연대와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 방식은 무엇인가?

첫째,

둘째,

3. 누룩으로서 교회

공적 영역에서 익명성

정치적 디아코니아

정치적 디아코니아의 거점으로서 교회

V. 나가는 말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결국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계층과 세대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자세가 없이는 횡단적 연대와 저항은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는 다층적 접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사회적 노령화) 및 출산율 제로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령화 혹은 사회적 노령화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어난다거나 소위 '장수 사회'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출산율 제로 사회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출산율 제로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사회 복지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노인 혐오의 문제로 이어진다.

오늘날 새로운 연대와 저항을 추구하는 과정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대안을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지금의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대안을 찾지 못하면 붕괴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기존의 사회 체제나 시스템은 현재 사회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는 한, 유지되고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억압과 강요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현실은 세상 속 교회의 역할에 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출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다: “첫째, 세상이 어두울수록 국가 차원이나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교회의 몰락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12·3 내란 사태와 기독교 파시즘 앞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새로운 인식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어떤 사회 집단보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단순히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교회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포되고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 교회는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종교 집단 자체도 그 종교 집단이 속해있는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MEMO